

退溪文學 研究의 成果와 課題

李 東 歡*

I.

오늘 채택된 이런 벽찬 주제를 다룰만한 분들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大邱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아마도 學問의 地域間 直接交流에 의미를 두지 않았나 해서 저도 사양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여기에 선만큼 이 주제를 책임있게 다루어 낼 지가 의문입니다.

최근 檀國大學校 退溪學研究所에서 간행한 〈退溪學研究〉 제 3집 부록으로 〈退溪學研究論著目錄〉이 수집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에 나온 退溪學에 관한 研究論著는 약 20여 권의 專著를 위시해서 대략 1100—1200여 편의 논문들이 파악돼 있습니다. 대단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0년대 이후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韓 近 20—30년 동안의 성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這間에 漸高되어 온 退溪學研究의 열도를 짐작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貴研究所를 선도로 해서 대학 또는 기타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 퇴계학 연구기관이 많이 설립되고, 또 국내의 관계 학회를 여러차례 빈도높게 개최해 온 데 그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결과여서 이 시대의 退溪가 가진 정신세계에 대한 일정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退溪學의 總體를 李家源 교수는 經學・性理學・文學・數理學・禮學・史學・教育・政事・選學・書法의 10개 분야로 區劃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 가운데서도 주지하듯이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역시 哲學領域이고, 그 나머지 영역들 가운데서는 文學의 領域이 비중이 가장 큼니다. 그래서 위의 성과들의 대부분은 물론 哲學領域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文學의 領域에 속하는 것들로도 專著 약간 권을 위시해서 논문이 대략 110—120편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文學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적잖은 분량의 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報告가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公刊된 論著들을 빠짐없이 정독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료 입수에 따르는 이러저러한 제약을 돌파하지 못한 이 報告者의 불민으로 다 찾아 읽지 못한 채 그 중 대략 절반이 넘는 60—70종 정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 高麗大學校 教授

* 李家源, 退溪學研究之諸課題, 退溪學報 14(退溪學研究院, 1977. 7); 〈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 退溪學研究院, 1989. 12〉.

게다가 시간의 제한으로 섭렵한 자료조차도 극히 제한적·중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와 같은 疎漏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指教·補完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현재까지 축적된 退溪文學에 관한 연구성과는 대개 네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함이 편의로우 듯합니다. 즉 時調와 歌辭, 그리고 文學觀의 문제와 漢詩가 그것들입니다.

退溪文學에 관한 연구는 國文學研究 제 1세대 특히 陶南 趙潤濟先生의 退溪 時調에 관한 연구가 先端을 열었습니다. 陶南先生의 國文學 研究業績 중 精采로운 하나로 알려져 있는 朝鮮朝 士林派文學에 있어서의 「自然美의 發見」을 그 내용의 핵심으로 한 江湖歌道の 전개란 맥락에서 退溪의 〈陶山十二曲〉을 떠올리고, 이를 退溪 人格의 통틀은 표현물로서 道學者 詩歌의 대표적 작품으로 규정하면서, 江湖歌道の 형성 배경을 黨爭下 政局에서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으로 개별적인 구분없이 일 개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1) 바로 陶南先生이 「自然美의 發見」 또는 「江湖歌道」를 떠올린 업적은 실로 우리 後學들에게 학문적으로 여간 큰 은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江湖歌道の 형성 배경을 개별적인 입장과 처지에 따른 구분없이 모두 이렇게 소극적으로 파악해 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비판되고 있습니다.

〈陶山十二曲〉에 관한 陶南 이후의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1972년에 발표된 李家源 教授의 〈十二曲〉 작편의 주제의 闡明과 解説을 들 수 있습니다. 즉 〈陶山十二曲〉 각 작품을 순서에 따라서 「仕學殊途」「聖代無過」「勿欺英才」「所思美人」「懷我良友」「欣賞道妙」「萬卷生涯」「耳目聰明」「古道今行」「莫作他想」「萬古常青」「聖愚之間」으로 4자 한자어를 가지고 그 주제를 천명하고 이를 부연·해설했습니다. (18) 李家源教授의 이 성과는, 바로 앞서 陶南先生의 黨爭下 政局에서의 明哲保身이나 致仕客의 閑適이라는 江湖歌道の 형성 배경에 입각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인식되었던 〈陶山十二曲〉의 著作 動機와 意味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李家源 教授는 논문에서 논리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주제가 단순히 明哲保身이나 致仕客의 閑適으로는 나올 수 없는 대단히 적극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陶山十二曲〉의 연구를 구체적·실증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셈입니다.

한 해 뒤 徐首生 教授는 〈陶山十二曲〉의 情緒와 美의 特性을 「純靜性」「自然文學性」「溫敦深思性」「主觀性과 音樂性」등 다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실을 援用하여 해설하면서, 退溪의 書風까지 논급한 周密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24)

그 뒤 崔珍源 教授는 陶南先生의 이론을 발전·심화시켜 江湖歌道の 내용을 보다 체계

계화한 연구에서 退溪의 〈陶山十二曲〉을 自然의 規範性을 즐기는 「賞自然의 風流」로 규정하고, 退溪가 그 跋文에서 제시한 溫柔敦厚를, 抒情을 規範化함으로써 抒情에 醇正을 期한 結果의 주제로 규정했습니다. (21·40) 崔教授는 이 연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醉樂의인 멋으로서의 風流의 개념과는 다른, 退溪가 〈陶山十二曲跋〉에서 밝힌 바 風流의 개념을 부각시켜서 風流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시킨 점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崔教授는 〈陶山十二曲〉을 포함한 江湖歌道の 상황적 배경을 陶南의 說을 그대로 따라서 「黨爭下의 逃避」 「賢者避世」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李家源 教授의 주제 천명에서 드러난 그 의미, 즉 〈陶山十二曲〉이 가지고 있는 바 의미의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분명하게 논리화시킨 주장이 李源周 教授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李源周 教授는 退溪의 求退의 의미를 「立言垂後를 위한 적극적인 지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立言垂後의 적극적 의도에서 求退하려고 한 것이지 단순히 明哲保身이나 致仕客의 閑適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논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陶南이래 江湖歌道 형성 배경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 반론을 폈습니다. 구체적으로 李教授는 논문에서 陶南의 그 부분을 인용해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67) 李教授의 이러한 비판은 〈陶山十二曲〉 研究史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陶山十二曲〉 研究의 최근의 성과로는 失傳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李鼐의 〈六歌〉 중에 네 편의 漢譯詩가 발견*됨으로써 이것과의 대비적 접근에 의한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李敏弘 教授는 이를 통해서 李鼐〈六歌〉의 玩世不恭에 대한 〈陶山十二曲〉의 溫柔敦厚의 의미를 가능한 한 현실의 밝은 면을 보고 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現實觀의 한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101) 이것은 溫柔敦厚에 대한 비교적 온당한 해석의 하나입니다만 溫柔敦厚는 반드시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 曹圭益 教授는, 退溪가 〈陶山十二曲跋〉에서 비판했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歌曲들인 高麗의 〈翰林別曲〉類와 朝鮮時代 李鼐의 〈六歌〉에는 두드러진 抒情的 自我로서의 「나」가 〈陶山十二曲〉에서는 숨어버림으로써 抒情詩에 있어서 그 抒情性的의 핵심인 對應構造는 결여되고 典雅한 平面的 構造로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123) 이것은 최근의 文學理論을 원용한 것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陶山十二曲〉 외에 退溪 作品으로 전해오고 있는 〈靑涼山歌〉에 대해서는 역시 李家源 教授에 의해 가장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陶淵明의 〈桃花源記〉와의 關係하에 比較文學의 觀點에서 공통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18)

이상으로써 時調에 관한 그 동안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다음은 退溪의

* 崔載南, 藏六堂六歌와 六歌系 時調(語文教育論集 7, 釜山大學校 國語教育學科, 1983).

國文歌辭에 관한 것입니다.

退溪의 所作으로 전해 오고 있는 〈공부조렬리가〉〈還山別曲〉〈相杵歌〉〈牧童問答歌〉〈樂貧歌〉 등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李家源·徐元變 두 教授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李家源 教授의 연구는 주로 作者가 退溪임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과, 각 작품이 내함하고 있는 주제적 요소의 천명 및 作品의 異本文제의 논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 이에 대해서 徐元變 教授는 작품내용의 단락별 해설과 형식의 확인에 주안을 두고 연구했습니다. (32·38·41·57·64) 그러나 이 歌辭 作品들 중 〈還山別曲〉과 〈牧童問答歌〉의 경우에는 각각 李東英 教授와 金東旭 教授에 의해 그 作者 問題에 대해 의의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3·9) 이와 같은 作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주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退溪文學研究 成果 중 이 부분이 비교적 논문 편 수가 빈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退溪 文學觀의 問題입니다.

退溪의 文學觀은 그의 時調 〈陶山十二曲〉의 연구 과정에 주로 그 跋文의 검토를 통해서 그 중요한 일부가 논의돼 왔습니다. 그것은 文學觀 자체를 논의하기 보다는 〈陶山十二曲〉을 이해하는 배경으로써 논의되었고, 그것이 자연히 退溪 文學觀의 중요한 일부가 된 셈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인, 부수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서 退溪 文學觀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기는 아마 1970년대 들어와서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 가운데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돼 있기로는 徐首生 教授가 197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였습니다.

徐教授는 孔門四科 이래의 儒家의 文學觀이 道文一致 文學觀임에 대해서 退溪는 여타 性理學者들처럼 철저한 道文一致 文學觀으로 치달지 않았고 道學과 文學의 밸런스가 맞는 「道文兩立, 道文折衷主義 文學觀」을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24) 徐教授의 道文兩立이라는 이 견해는 그 내용을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道와 文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道는 文이 없이는 전파가 안되고 文은 道가 없이는 알맹이가 없다는 이런 相須關係로 해석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道와 文의 내적·논리적 관계의 對等性, 그러니까 道學은 道學이고 文學은 文學이라는 獨自性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徐教授는 아름다운 형식이 없이는 아름다운 내용도 없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없다 한 것으로 봐서 徐教授의 道文兩立이라는 이 표현은 전자 바로 道文相須關係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周易〉의 「修辭立其誠」이나 「言之不文 行之不遠」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道文一致는 道文相須關係의 하나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退溪의 文學觀도 사실은 전통적인 儒家의 道文一致觀과 크게 구별될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趙東一 教授는 主氣의 世界觀에 입각하여 退溪의 文學觀을 主理的인 것이라 하여 다분히 비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退溪는 理貴氣賤의 관점에 입각해서 主氣를 버

리고 主理로 나아가서 理가 發하고 氣가 따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런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하고 이런 목표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文學, 특히 自然과의 和合을 노래한 것이 詩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花潭과 栗谷의 主氣的 文學觀과는 달리 「氣에 의한 대립에서 벗어나 理에 의한 화합과 질서를 추구한 退溪의 文學에는 氣의 대립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현실의 문제는 도외시되는 것이다」라고 다소 비판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42·56) 일반적으로 氣는 바로 운동의 주체이고 운동은 바로 대립, 곧 변증법적 대립·발전이라는 서양의 변증법 개념에 의한 氣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한 문학이론이 되겠습니다.

退溪 文學觀에 대한 趙東一 教授와는 다른 입장에서의 보다 체계적·조직적인 논구는 李源周 教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李教授는 退溪의 求退의 意味는 立言垂後의 志向이며, 退溪는 文學의 效用을 正心에 두어 文과 道와의 관계를 相須關係로 보고, 創作의 실제에 있어서는 體와 格의 法度를 鍛鍊하되 그 主題的 지향은 「規戒」「勸勉」「成人之美」「勸善」, 이 네 가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文學觀에 입각된 退溪 文學은 退溪 자신이 제시한 「儒學者의 文學」「文章家의 文學」「場屋文學」 가운데 「儒學者의 文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67) 이 退溪 당시에 退溪가 문학을 분류한 것은 그 당시의 文學觀을 드러내면서 또 그 당시 문단의 현실을 알려준 것이기도 하여 우리에게 當代 文學現象에 대한 유효한 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李教授의 이 논고는 道文一致的 退溪 文學觀의 주요 골간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退溪 文學觀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낸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金周漢 教授는 「離心力」과 「向心力」이라는 두 概念(틀)으로 退溪의 文學觀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退溪가 <朱子書節要>를 엮을 때 「이 數日來로 매미 소리가 더욱 맑아 이를 들을 때마다 高風을 그리워했습니다.>(<答呂伯恭書>)와 같은 얼핏 봐서 별로 緊縮은 것을 뽑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배와 제자들이 이런 閑酬酌까지 뽑아 넣을 게 뭐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退溪는 閑酬酌으로 보든 閑酬酌이고, 緊酬酌으로 보든 緊酬酌이라 해서(<答南時甫書> <答李仲久書>) 그야말로 철학자로서 退溪의 정신세계의 독특한 면을 보여 주는, 아마 退溪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효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金教授는 이 점에 착안해서 「離心力」과 「向心力」이라는 두 개념으로 退溪가 보는 문학의 存在意義나 存在樣態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8) 이 특이한 표현의 두 술어의 개념은 緊張과 弛緩 또는 嚴肅과 疏放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退溪가 보는 문학의 존재의의 또는 존재양태를 설명하는 데 이 두 개념이 일정한 효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退溪 文學觀에 대한 최근의 흥미로운 해석은 李魯亨 教授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李教授는 退溪哲學에 있어서 「理氣分屬」「理善氣惡」의 관점을 당시 勳戚勢力과 士林勢力에 대응되는 것—이런 관점, 그 당시 勳戚勢力과 士林勢力의 대립이 退溪의 心性論에서

「理氣分屬」「理善氣惡」의 이론을 보다 강화시킨 현실적 조건이라는 인식은 전부터 은연 중에 있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李魯亨教授는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것을 退溪 文學思想의 성격 규정에 원용하고 있는 점이 새롭습니다. 즉 退溪의 主理의 입장과 이에 입각한 개인의 수양이 「理弱氣強」의 철학적 논리와 마찬가지로 勳威에게 박해를 당하는 士林의 현실비판과 모순극복이라는 사회성, 다시말하면 退溪의 「理氣分屬」「理善氣惡」의 心性觀이 그 당시 악세에 몰린 士林勢力이 勳威勢力을 극복하려는 그런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退溪의 主理의 文學觀도 이와 같은 軌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124) 退溪의 主理의 文學觀에 대한 종래의 다분히 靜態的 認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즉, 動態的 認識에로의 進境을 이룬 것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退溪 漢詩作品에 관한 연구입니다.

漢詩 作品의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아마 10여년래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그 축적의 밀도가 급속도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초기 退溪 漢詩 전반에 걸친 개괄적 특성의 파악이라는 演繹的 接近에서 빠른 속도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포함에 의한 歸納的 接近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 됩니다.

李家源教授 등에 의한 漢文學史類에서의 개괄적 논점을 제외한다면, 退溪 漢詩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에는 중국인 王甦教授의 공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退溪詩學〉이라는 책자로 모아진 王甦教授의 성과는 詩 내용의 특성 분류를 주축으로 하여 詩集의 編次 문제까지 다룬 周密한 것입니다. 王甦教授는 退溪의 詩를 내용상 「言志詩」「述懷詩」「山水詩」「感事詩」「詠物詩」「梅花詩」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또 시각을 달리해서 「理語詩」와 「理趣詩」를 따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50) 다만 退溪 作品의 전반을 다루어서 이렇게 내용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梅花詩」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詠物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데 退溪가 〈梅花詩帖〉이라는 독립된 詩卷을 남기고 있다거나 특별히 양이 많다고 해서 별도로 「梅花詩」로 독립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詠物詩」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성질의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다면 분류와 분류 論據는 온당합니다. 그러나 작품을 다루는 이런 분류를 뒷받침하는 해설의 태도는 아직 이론적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뒤로 개괄적 특성을 평가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退溪詩의 詩的 비전을 「超越」과 「和諧」로 파악한 것(45), 「純粹의 思想」과 「風流의 思想」으로 파악한 것(53), 「求道の 詩」와 「成道の 詩」로 파악한 것(67), 退溪詩의 특징을 「溫柔敦厚」로 파악한 것(89), 退溪詩의 內在的 美感을 「隱喻的 歷史意識」「自然眞樂에의 憧憬과 淸標心」「哲理的 言外有意性과 純靜性」으로 파악한 것(76)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退溪詩의 風格을 「事實性」「體物性」「感悟性」「輔仁性」「靈動性」의 다섯 가지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王

甦教授가 退溪 梅花詩의 風格에서 정립한 개념을 退溪詩 전반에 연역 적용한 것입니다. (85·86) 꼭 같은 내용의 글인데 제목만 달리해서 하나는 「梅花詩의 風格」, 하나는 「退溪詩의 風格」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검토해 보니, 결국 그것이 退溪詩 전반을 커버할 만한 개념들로도 일정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접근에 의한 성과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素材論的 接近에 의한 梅花詩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梅花의 상징성을 「美人의 姿態」 「仙人의 風韻」 「隱士의 淸標」 「貞士의 志節」의 네 가지로 파악해서 제시한 것(85), 그 다음에 退溪 이전부터의 梅花詩의 발전사적 맥락에서 韓·中 양국에 있었던 梅花詩를 역사적으로 검토해서 退溪詩와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退溪의 梅花詩에만 나타나는 독특성을 「傷恨歎」, 즉 梅花가 추위에 상한 것을 몹시 가슴 아파하는 것은 善人의 시련을 退溪가 비탄해 함을 상징한 것이라 한 연구(82)가 있습니다. 洪瑀欽教授에 의해 주로 밝혀진 이와 같은 성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이는 종래에 볼 수 없었던 梅花詩의 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梅花와 退溪와의 問答 形式을 채택한 詩들도 退溪 梅花詩에만 보인다고 한 것(11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退溪 50세를 전후로 한 그의 詩世界의 변화를 포착해서 그 이전의 詩에 자주 보이는 仙界 이미지를 「拘束으로부터의 脫却」, 그 이후 시에서의 달과 梅花를 「淸眞 또는 淸淨의 世界」 곧 「天理의 世界」의 표상으로 본 성과(58), 退溪가 왕의 使命을 받고 지방을 다니면서 쓴 「使行詩」만을 대상으로 자세한 보고를 한 근래에 이루어진 성과(121),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환기에 처한 사람들, 예를들면 伯夷와 吉再와 같은 사람을 제재로 한 시를 통해서 退溪의 역사의식의 일단을 탐구한 가장 최근의 성과(133)를 들 수 있습니다. 또 退溪 생애의 일정기간의 시를 대상으로 그 특징을 탐구하려 한 시도, 즉 退溪 登科를 전후한 癸巳年代(33세)의 시를 대상으로 退溪의 學問精神과 물러나 숨으려는 사상을 밝혀낸 성과(25) 등이 개별적인 성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比較文學的 接近에 의한 성과로, 朱子의 〈武夷權歌〉 수용문제가 李敏弘·金周漢·王甦 세 교수들에 의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을 退溪의 비평 의식에 연결시켜서 우리나라에서의 朱子의 〈武夷權歌〉의 수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朱子의 〈武夷權歌〉는 「入道次第」 곧, 학문의 진척단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河西와 浦渚와는 달리 「托興寓意」 곧, 叙景을 하되 거기에 道의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붙였다고 보는 것이 退溪의 〈武夷權歌〉 수용 태도라 했습니다. (75·94, 100·101/81/96) 한시는 서정시나 매우 순수한 서정시라 하더라도 뭔가 정치·사회적 寓意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시를 보다 깊이 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托興寓意」는 退溪詩뿐만 아니라 漢詩 일반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의 끝으로 우리는 최근의 權五鳳教授의 일련의 勞作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權教授는 다년간의 문헌조사와 현지 답사를 겹쳐서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및 〈退溪家年表〉 등의 著書(130·135)를 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退溪 詩作品의 구체적인 연구에 많은 유익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나의 시가 지어진 정확한 年·月, 경우에 따라서는 日字까지 밝혀져 있고, 또 그 때의 退溪의 동정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權教授의 이 저작은 앞으로 退溪詩 연구에 큰 은택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개해야 할 귀중한 연구성과들이 저의 보고서 작성의 편의에 의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빠트려진 것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成果」를 끝내고 논제의 두번째 부분인 「課題」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약간 권의 저서와 백 기십편의 논문이 축적된 결과 退溪의 文學연구는 한편으로는 많이 심화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개척되기도 했습니다. 개척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退溪의 文學연구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의 진척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잇따라 제기되겠지만, 우선 떠오르는 몇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時調 연구에서는 詩의 像想力の 構造내지는 運動을 탐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연구 중 앞서 소개한 曹圭益教授의 研究(123)에서는 抒情的 自我인 「나」가 숨어버림으로써 對應構造가 없어지고 平面的 構造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像想力の 構造내지 運動을 파악함으로써 이와는 다른 면모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소 즉흥적이기는 하지만 〈陶山十二曲〉 중 한 수를 예로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幽蘭在谷하니 自然이 들디 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도해
이 등에 彼美一人을 더욱 닳디 묻혀애

(前六曲 其四)

이 중 「幽蘭在谷」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儒敎의 全人間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白雲在山」도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退溪가 동경해 마지 않던 晋나라 陶弘景의 생활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彼美一人」은 儒敎의 君主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넓깊은 함축을 가지고 있는 세 구절은 「들디 도해, 보디 도해, 닳디 묻혀애」 하여, 우리가 얼핏보면 논리적으로 잘 닿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행간을 건너 뛰고 있는 像想力の 構造내지 運動을 파악한다면,

平面的이라는 면모와는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조의 주제를 「所思美人」, 단순히 군주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像想力의 構造나 運動이 밝혀지면, 이런 주제의 파악이 단순성을 거쳐서 보다 확충된 의미나 지향을 가져올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 歌辭문제는 우선 작자가 退溪가 확실한가 아닌가부터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잠정적인 입장은 이 歌辭들을 退溪의 作品으로 보는데 주저하는 쪽입니다. 일단 間接적으로나마 기록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론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나 내용, 짜임을 볼 때, 또 〈陶山十二曲〉을 쓰면서 跋文까지 남긴 退溪가 가사 다섯편을 쓰면서 한 줄의 기록도 남긴 것이 없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退溪作이라는 간접적인 기록은 과연 신빙할 수 있겠는가 의심이 됩니다. 기타 다른 여러가지 주변 여건도 있고 해서 확실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연구 자료로 주저하는 쪽입니다. 대담한 추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退溪作으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時調 〈淸凉山歌〉도 저는 退溪의 作이라는 데 회의적입니다. 우선 表現 口氣가 도대체 退溪의 口氣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淸凉山 六六峯은 아나니 나와 白鷗로다 / 白鷗야 엇디흐랴 못 밋돌손 桃花 | 로다」 한 이런 口氣는 〈陶山十二曲〉 뿐만 아니라 退溪 어느 漢詩에도 그런 表現口氣는 없습니다. 이는 儒學者의 口氣가 아니라 文學者의 口氣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桃花야 물뜨라 가지마라 舟子 | 알까 하노라」 한 절미까지 본 이 時調의 사상세계는 退溪가 은거에서 지향한 그런 사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과 완전히 담을 쌓는 道家의 思想志向이란 이런 근거로 해서 저는 〈淸凉山歌〉도 退溪의 作이라는 데 회의적입니다.

다음은 文學觀에 대한 문제입니다. 道學者의 文學觀, 退溪의 文學觀이 나오면 지금의 연구자들은 하나의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왜 文學을 道學에 종속시키느냐, 이것은 대등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혹시 대등관계라도 비치는 듯한 구절이 나오면 아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몹시 비판적으로 보곤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여러가지 문화활동 중 문학이 반드시 철학보다 소중하다는 근거도 없겠지만, 특히 退溪에 있어서는 그의 전 학문분야를 道學原理가 관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道學原理가 관철하고 있고, 退溪學의 총체적인 범주에서 최고의 범주에 놓여 모든 영역을 포섭·통괄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退溪學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退溪의 총체적이고도 우람한 道學體系를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현대의 어떤 분류개념을 가지고 道學對 文學, 道學對 史學 등의 식으로 인식한다면, 참으로 退溪의 道學을 아주 왜소하게 만들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中世의 高峯을 이룬 중요한 精神史의 유산을 우리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退溪文學觀의 문제는 보다 더 이론을 정세화하고

논리화해서 아주 道學者의 文學觀으로 당당하게 수립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溫柔敦厚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논리적 천명이 보다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李家源教授가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 두었습니다.(89) 그러나 보다 심화된 추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溫柔敦厚가 美的 範疇인지 倫理的 範疇인지 단 배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이 내적 논리는 상당히 단순치 않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가지 문학사나 經學史의 맥락에서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입각해서 이 개념이 천명되어야 退溪 문학을 이해하는 데 보다 논리적인 안목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漢詩 연구는 개괄적·연역적 접근에서 바야흐로 구체적·귀납적 접근으로 넘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과제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時調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의 문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시조의 행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退溪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매우 淵深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退溪의 詩는 훌훌하게 그냥 기분에 쓴 게 아니라 沈吟長考하고, 鍛鍊을 하고 내놓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한 자 한 자가 의미가 범상치 않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退溪詩 연구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道學的 관념 형태가 退溪의 문학과 관련해서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 가령 이런 道學的 관념형태가 어떤 양태로 詩化[作品化]되느냐 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일반적인 문제인 이데올로기와 문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모델의 수립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곧잘 거론되는 溫柔敦厚의 특성과 관련해서 退溪詩에는 과연 현실 비판이 없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溫柔敦厚하다고 해서 현실 비판을 외면했다고 속단하는 것은 바로 溫柔敦厚의 개념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溫柔敦厚란 美學的 태도나 방법의 성격이 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어떤 목표이기 보다는 미학적 태도나 방법, 말하자면 「무엇이냐」 보다는 「어떻게, 어떠하냐」 하는 쪽이 더 강하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어떠하냐」가 결국은 「무엇이냐」로 전환되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성격을 가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溫柔敦厚하다고 해서 여기에 현실 비판이 없다거나 현실 비판을 외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격렬한 어조나 풍자적인 어조로 하는 것만이 현실 비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잔디의 무저항·비폭력처럼 대단히 온화하게 표현하면서도 매서운 현실비판을 담을 수 있는 것이 溫柔敦厚입니다. 退溪詩에는 유심히 본다면 이런 것이 적어도 얼마만큼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까지 문학 쪽에서 전혀 거론이 안된 문제지만, 退溪의 서간이나 일반 산문이 가진 文體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退溪의 文體는 대단히 개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文體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退溪의 정신세계의 어떤 중요한 한 면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문학 연구에서 文體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退溪詩의 번역 문제입니다. 사실 고전 작품은 당시대의 사람, 즉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국민 교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退溪文學의 연구 열도가 높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칫하면 한갓 소수 연구자들의 知的骨董에 떨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국민 교양화가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전통의 계승이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연구자들끼리만의 하나의 지적 道樂에 그치고 맙니다. 그동안 이 방편의 축적을 바탕으로 현대인에게 교양이 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退溪詩의 번역과 해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학연구에 못잖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것이 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연구가 제대로 그 의의를 발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드립니다.

너무 冗長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